

# 조세호 합류... '무한도전' 6인 체제로 새출발

'무한도전'은 MBC TV '간판 예능'이란 위상에 맞게 멤버 한 명 한 명에 대한 애청자의 관심도 남다르다.

특히 멤버 구성에 변화가 있을 시기엔 '시아머니'라고까지 불리는 팬들이 나서서 국회 청문회 버금가는 검증을 벌일 정도다.

최근 개그맨 조세호(36)의 합류로 다시 정식 6인 체제가 된 것을 계기로 '무한도전'의 멤버 변천사를 되짚어 본다.

◇ 6명 채우기 위한 필사의 과정... 전진부터 조세호까지

'무모한 도전', '무리한 도전' 등 파일럿 프로그램에 가까운 시절을 거쳐 2006년부터 정식으로 뜻을 올린 '무한도전'은 첫 방송부터 함께한 유재석(46), 박명수(48), 정준하(47), 하하(39) 등 4명 외에는 멤버가 계속 변했다.

큰 줄기는 '6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무한도전'은 팀별 대결 콘텐츠가 많은 만큼 멤버가 짝수인 것이 프로그램 진행에 유리하다. 또 10년 이상 프로그램을 끌어오다 보니 6명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만큼 이야깃

## 장기 게스트로 출연 후 자연스레 정식멤버로 채택 멤버 구성 변화있을 시기엔 팬들이 직접 검증 나서 하하 등 5인은 본업보다 전문 예능인으로 더 활약

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제작자에게 부담이다.

2006년 첫 방송 당시에는 원년 멤버 4명 외에 정형돈(40)과 노홍철(39)이 있었다.

첫 멤버 변동은 2008년 2월부터 하하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을 때로, 당시 빈자리는 가수 전진(38)이 채웠다.

또 2009년부터는 '카메오'였던 그룹 리쌍의 길(41)이 본격적으로 합류해 처음으로 7인 체제가 됐다. 그러나 전진이 공익근무요원 복무 전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같은 해 10월 하차, 다시 6인조가 됐다.

이때부터 2013년까지 프로그램은 탄탄대로를 걸으며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2014년 4월 길이가 음주운전으로 하차하고, 이어 11월 노홍철도 같은 문제로 퇴장하면서 '무한도전'은 처음으로 5인 체제가 됐고 종종

풍파도 찾아왔다.

이후 2015년 4월 '식스맨 특집'으로 제작의아이들의 광희(30)가 합류하며 겨우 6인 체제를 재건했지만 같은 해 8월 정형돈이 불안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하차하면서 또 5인조가 됐다. 이 자리는 2017년 양세형(33)이 게스트 형식으로 출연하며 채웠지만, 그해 3월 광희가 입대해 또 공석이 생겼다.

이후 양세형이 자연스럽게 고정 멤버가 됐고, 프로그램에서 그를 정식 멤버로 따로 발표한 적은 없지만 김태호 PD가 인터뷰에서 고정멤버라고 밝혔다.

그렇게 5명을 채우고 남은 한 자리는 배우 배정남 등 게스트로 채워졌다.

특히 배정남은 독특한 캐릭터로 인기를 얻으면서 그가 새 멤버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많았지만 이때도 역시 일부 팬의 '비토'는 존재

했다. 결국 마지막 한 자리는 최근 조세호의 몫으로 돌아갔다.

◇ 장기 게스트로 검증→합류... 6명 중 5명 전문 예능인

최근 '무한도전'의 멤버 층위 패턴을 보면 '팬층은' 예능인을 게스트로 장기 출연시키다 자연스레 정식 멤버로 채택하는 식이다.

양세형과 조세호가 모두 그랬다. 그동안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팬들 사이에서 새 멤버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돌았고,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자의와 관계없이 가혹한 평가에 시달렸다.

이에 제작진은 아예 공개 오디션 형식의 별도 특집을 마련해 광희를 선발하는 등 '인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지만 부작용은 늘 있었다. 제작진은 고민 끝에 재능 있어 보이는 인물을 오랜 기간 게스트로

활용해 시청자들이 친숙해지도록 한 뒤, 자연스럽게 고정멤버로 합류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호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무한도전'에 꾸준히 얼굴을 비쳐왔다.

최근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6명 멤버 중 5명이 전문 예능인이 됐다는 것이다.

하하가 본업이 가수이기는 하지만 '무한도전' 뿐만 아니라 SBS TV '런닝맨' 등 예능에서 더 활약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도 예능인이나 다름없다.

'무한도전'은 지난해 7주간 휴식, 그리고 MBC 파업으로 인해 연이어 장기 결방을 했다.

프로그램 안정을 위해 기존 멤버들과 합이 좋으면서도 안정된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예능인들을 위주로 발탁한 게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세호의 합류에 대해서도 제작진은 13일 "조세호 씨가 보여줄 멤버들과의 재밌는 조화를 우리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그러면서 "조세호 씨와는 오래전부터 함께하고 싶었으나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며 "가족이 되는 데 오래 걸린 만큼 앞으로 더 기대하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내가 장손주' 장혁, 정제 밝혔다  
MBC '돈꽃' 주말극 시청률 2위

"장손주 장은천 절 받으십시오"  
지난 13일 오후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돈꽃'에서 장혁이 이순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강필주(장혁는 서유가 담긴 분홍보자기와 들고 장성만(이순재)을 찾아가 생부의 유품인 목걸이를 내밀며 명예회장이 아닌 "할아버지"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장부천(장승조)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채자 먼저 선수를 친 강필주의 충격적인 반전이였다.

본격적인 대립을 예고하며 졸깃한 엔딩을 장식한 '돈꽃'은 시청률 1부 14.9% 2부 18.8%를 기록했다.

14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된 지상파 프로그램 가운데 KBS 2TV '황금빛 내 인생'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목직한 눈빛과 실감나는 연기로 '돈꽃'의 긴장감을 살리고 있는 장혁과 그에게 '조련된' 장승조의 활약도 빛나고 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주말드라마 대세로 자리잡은 '돈꽃'은 재벌가 불륜이 빚어낸 복수극이다. 돈을 지배하고 살고 있다는 착각에 살지만 실은 돈에 먹혀버린 이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된다. /뉴스

### '1987' 18일만에 500만명 돌파

영화 '1987'(감독 장준환)이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1987'은 전산 1104개관에서 4585회 상영, 43만4188명을 추가해 개봉 18일 만에 누적 관객수 500만명을 넘겼다(537만명, 누적 매출 368억 원).

'1987'은 1987년 6월 항쟁을 그린 작품이다. 대학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 도중 고문 당해 죽자 정부는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이 일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 지난해 스트리밍 소비·앨범 판매 늘었다

1억 이상 12곡... 도깨비 OST '첫눈처럼' 1위

대중음악계에서 음원시장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이 되면서 무려 10곡 이상이 1억 스트리밍을 넘겼다.

최근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운영하는 공인음악차트 가온 차트가 발표한 '2017년 연간차트'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억 스트리밍을 넘긴 곡은 총 12곡이다.

작년에 비해 무려 10곡이 늘었다.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아이유의 '뽀빠지', 윤종신의 '좋은 날', 불빨간 사춘기의 '좋은 날', 에드 시런의 '셰이프 오브 유',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 래서', 아이유의 '팔레트', 마크툼과 구윤희의 '메리미', 크러쉬의 '뷰티풀', 트와이스의 '누나', 워너의 '리얼리 리얼리', 악동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이 1억 스트리밍의 주인공이다. /뉴스

이 중 디지털 음원 데이터다운로드, 스트리밍, BGM를 합산한 연간 디지털종합차트에서 1위에 랭크된 곡은 드라마 '도깨비' OST로 발매된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가 차지했다. 지난해 1월21일 드라마가 종영한 이후에도 대중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았다.

작년 발매된 곡으로 연간 디지털종합차트 톱100에 가장 많이 랭크된 아티스트는 총 6곡을 랭크시킨 아이유다.

다음으로, 트와이스, 불빨간 사춘기가 각각 3곡씩 랭크시켜 우면 파워를 입증했다.

앨범에서는 여전히 남성 아이돌이 강세였다. 특히 대세 아이돌 그룹 '엑소'와 '방탄소년단'은 작년 발매한 앨범 판매량 총합이 각각 200만장을 넘어섰다.

### "잘키웠다"... 방탄소년단, 브랜드평판 1위

1683만9776점으로 보이그룹 최고... 2위 워너원·3위 엑소

남성 그룹 중 가장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팀은 '방탄소년단'으로 집계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14일 발표한 '1월 보이그룹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방탄소년단'(RM·슈가·진·제이홉·지민·뷔·정국)은 브랜드평판 지수 1683만9776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이하 평판연구소)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측정한 보이그룹 브랜드 빅데이터 1억1205만3324개를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참여지수·미디어지수·소통지수·커뮤니티지수를 측정했다. '방탄소년단'은 3개월 만에 1위 자리에 복귀했다.

평판연구소는 "방탄소년단' 링크 분석에서는 '행복하다·사랑하다·고맙다'라는 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골든



디스크·빌보드 차트·유튜브'가 많았다"며 "연말 시상식 등이 이어지면서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통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순위

는 2위 '워너원'(1674만2534점), 3위 '엑소'(1137만108점), 4위 '사이니'(643만940점), 5위 '세븐틴'(520만2796점) 순이었다. /뉴스



# 전국 3만6천명 여성 최고의 직업

아모레 카운셀러

※ 문의만 하여도 선물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 화장품 판매 1위

대한민국 기초 화장품 1위 셀화수

대한민국 색조 화장품 1위 헤라

제약에서 만든 건강식품

1. 여성으로 가장 잘 할수 있고 가장 쉬운 사업입니다. 판매와 재판매가 손쉽고 고객과 본인이 함께 이해지는 일석이조!!
2.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브랜드 입니다. 설명이 필요없이 판매가 쉬운 대한민국 명품 화장품 입니다.
3. 기본수당 + 영업판매수당 + 각종 판촉지원 + 교육지원 + 해외여행 기회..... 등

아모레 신안특약점 수퍼마스터 송광자

010-3634-5083

062-522-2352 / 2353